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다는생각을 가진다면 사업화의 성공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기술거래소 「2003년도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 김동섭 사업본부장



한국기술거래소 김동섭 사업본부장

한 때 우리 사회에는 벤처의 열풍이 거세게 불어닥친 때가 있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기억이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우수후순처럼 벤처 기업 생겨났다. 마치 대박을 터트리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가진 양 저마다 자신의 기술, 아이디어 하나만을 믿고 불안한 외줄타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그들에겐 실패라는 쓰라린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대부분의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실패하게 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만 있을 뿐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 했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신기술이나 아이디어에 관한 불확실성이나 정확한 정보수집과 분석 판단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공의 확률을 보장받지 못했던 것이다.

신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이나 사업 그리고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시작하기에 앞서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친다면 성공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기술거래소(www.kttc.or.kr/대표 연원식)는 지난달 10일부터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이 보유한 신기술·아이디어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 이전에 기술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주는 사업으로써 창업이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

하려는 사업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한국기술거래소 김동섭 기술거래본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봤다.

신기술 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이란 무엇인가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은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이 보유한 신기술, 아이디어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 이전에 기술성, 사업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이에 대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에는 360건의 신기술을 신청 받아 그중 90건을 평가대상과제로 선정하여 성공적으로 평가를 마쳤습니다. 현재 이 평가를 받은 기술들에 대해서는 정부(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투자마트를 통한 투자유치, 기술거래, 신용보증 등을 지원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화타당성을 평가한다는데,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사업화타당성 평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술이 과연 수익성이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는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크게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3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해당기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즉, 기술의 우수성과 참신성, 시장의 규모나 향후 시장 전망과 발전 가능성, 경영자의 의지와 경쟁력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과 충분한 자료 등에 기반하여 해당기술분야의 박사급 전문가들이 다각적으로 평가를 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평가대상과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선정이 되는가

평가대상과제를 선정하는 절차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접수된 신기술·아이디어에 대하여 4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사, 운영위원회 및 총괄위원회를 통하여 평가대상과제가 선정됩니다. 5월10



일까지가 신청기간이고 이런 선정과정을 거쳐서 6월부터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되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혜택이 주어지나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업자체의 지원혜택인데 평가비용 1500만원이 정부자금으로 지원됩니다. 이 자금은 해당기업에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기술거래소의 관리 하에 평가에 소요되는 실질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아마 민간평가회사에서 평가를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술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2~300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한국기술거래소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실비 이하의 비용으로 평가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청자가 시험분석이

나 시제품제작, 산업재산권(특허 등)출원 등 추가지원을 희망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증액하여 지원을 해드립니다.

둘째로는 평가 종료이후 연계지원이 있습니다. 이는 평가내용에 근거하여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해드린다는 것으로 여러 가지 수단이 실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중기청의 기술혁신개발사업·이전기술개발사업·중소벤처창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창업 및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연계하여 지원될 것이고 사업화 성공을 위해 기술·경영 등 입체적인 종합컨설팅과 함께 기술이전 및 거래를 알선하여 드리며, 창업투자회사 등을 통한 민간투자자금의 유치, 기술신보를 통한 보증 등 총체적인 지원하게 됩니다.

이 평가과정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시장정보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벤처기업들이 기술 하나만 믿고 창업하다 실패의 쓴 맛을 봐야만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한 때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며 창업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벤처기업들은 시장분석 등 사전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창업을 서둘러 기술도 사장되고 실패의 쓴 맛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당시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이 있었다면 아마 많은 기술들이 우리생활에 적용되고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기술 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현재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 5월10일이 마감일입니다.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 생명·화학 등 4개 분야에서 제품 및 공정의 혁신적 개선이 가능한 기술과제,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으로 등록·출원중인 기술)으로서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과제를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50인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접수는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www.kttc.or.kr)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김동섭 기술거래본부장은 “우리 속담 중에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을 잘 활용한다면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좀더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나 전화문의를 통하여 해주길 당부했다. **KOVA**

(문의전화:02-6009-4393/4387/4395)